

COR. 1-585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

묘추묘담

대조선기국오백사년을미



31008  
No 7975

묘축문답상권

묘축은 우리나라 말 노닐으면 동남묘슈복  
이와 신당직이와 성황당직이 못할기시니  
에 수교전도하는 사람과 문답할말이라  
에 수교전도하는 사람이 신당압흐로지나  
더니 할로인이 왼손에 지팡이를 쥐고 오른손  
으로 슈염을 든지며 홀노 신당압희안저거늘  
전도인이 갖가이 가서 인스하고 곁으터 아자  
씨복을 밧아서 편안호서 오닛가 그로인이 곁  
으터 나는 홀아비로 조식도 업시고 성하는 사  
름이 무슴복을 밧는 다하는 노전도인이 곁으

터 아자씨가지 땅이를 집고 놀며 구경호시는  
모양을 보건티 덩녕청한 할기이시여늘엇지  
고성할다호시는 노로인이 곁으터 나는 청한  
할사람이 아니라 이곳당직이 노릇하는 사람  
이로라 전도인이 곁으터 그러하면 아자씨씨  
서이신당당직이시면 응당복을 만히 밧아계  
시리이다 속담에닐으터 스환가에 갖가오면  
구실을엇어하고 부엌에 갖가오면 밥을엇어  
먹는다호오니 아자씨는 흥상보살을 피시고  
잇스온죽엇지도로려복이업다호시는 잇가  
당직이 곁으터 나는 세상사람을티신하야보

삼을 섬기는 고로 공덕은 다 세상이 됨의 계로  
가고 나는 상 관업 노라 전도인이 곧으 타듯 스  
오니 보라 흠은 뉘다 흠이 요 살이라 흠은 제 중  
한 다 하는 말이 라 한 오니 한 물며 당신은 요 석  
으로 정성을 드리시 매 엿지 공덕이 상 관업 다  
한 시는 요 당직이 곧으 티 내 수 십 년을 보살을  
섬기고 늙은 묘 희 권과 초자루를 프 라 한 로 두  
세 식 먹으나 너 너 지 못 한 세 가 만 한 하니 복이 무  
어 시 노 전 도 인 이 곧으 티 당 신 은 밤 낮 스 로 보  
살을 외 서 향 불 를 받 드 되 복 을 엿 지 못 한 거 든  
한 물며 세 상 사 례 이 야 보 살 의 덕 을 닦 을 쇼 나

요축문답

해시

두 사람이 이르듯 말갈 저 읍에 한 사람이 전당  
에 드리 가 처 성 한 거 늘 신 당 직 이 쓰 라 드러 가  
는 지라 전도인이 또 한 흠 쇠 드러 가 니 처 성 한  
는 사람이 초 불 을 켜 고 향 을 살 으 며 술 과 실 과  
를 버려 늦 코 귀 신 의 계 빌 며 추 침 통 을 췌 여 보  
고 니 러 나 서 도 희 옷 과 돈 을 티 우 니 당 직 이 북  
을 치 며 종 을 을 니 고 처 성 한 는 사 례 이 또 한 티  
를 티 우 고 일 을 못 친 후 에 늙 은 물 건 을 기 두 어  
가 지 고 가 거 늘 전 도 인 이 당 직 이 드러 무 러 왈  
초 불 켜 고 분 향 흠 은 무 슌 뜻 이 노 한 나 당 직 이  
답 왈 이 는 정 성 드 리 는 무 슌 을 표 한 는 거 시 니

라 곧 으티 마른 나무 등결에 정성을 드리면 무  
슴유익 흙이 잇스리요 당직이 곧 으티 나무로  
삭인 신령을 위하는 거지 아니라 이 화상에 부  
치인 신령을 위하는 거지 아니 신령을 섬기는  
사람은 도으심을 밋느니라 전도인이 곧 으티  
과연 신령이 화상에 주접하여 잇느뇨 당직이  
왈 그러하니라 곧 으티 만일 신령이 이 화상에  
주접하여 잇스면 잇지 하여 쥐가 구멍을 내고  
좁이 먹으되 스스로 능히 보전치 못하느뇨 보  
살이 조그 몸을 보전치 못하거든 흙을 머만 민  
을 엿지 보전하리요 사라 잇는 몸으로 썩어 업

서 질흙과 나무를 위하야 절하니 도모허거북  
과 구렁이의게 절하는 것보다 더욱 미혹하도  
다 초불켜고 분향하는 거슨 고자하고 솔파고  
기를 버려 노음은 무슴 뜻이뇨 당직이 곧 으티  
이거 솔드림은 보살이 흙향하라 흙이니라 전  
도인이 왈 내보매 제스 혼물건이다 그티로 잇  
거늘 엿지 보살이 흙향한다하느뇨 곧 으티 보  
살이 제물을 잡슈 심이 아니라 다만 내음식을  
흙향하시느니라 전도인이 왈 그런즉 제스 후  
에 제스 혼물건이 내음식이 반드시 업솔거시  
여늘 제스 지넌솔이 풀과 쟁치 심심하고 고기

가나 무지적 위키 된 단말을 듯지 못호엿노  
라 비록 물 건이 차고 더운 거슨 다르되 맛과 내  
음 서는 일반인 죽엇지 보살이 흥향한 다닐으  
리요 때더 하는 남외쳐 사름이 먹고 살거술 주  
섯거 볼 사름은 구제치 아니호고 우상의게 드  
리니 진실노 미혹호고 또 환문을 더지논 거슨  
무슴 뜻이요 고평으 티 보살이 길한 것 파 흥한 것  
술 마르쳐 주실 가함이 니라 전도인이 고평으 티  
마르쳐요 하니 마르침을 엿저 짐작호는 노당  
직이 고평으 티 돈을 런호여 더지 매쳐 빈업혀 제  
면길한 거시오 후젓쳐 지고 후업혀 지면 흥한

거지 니라 고평으 티 그 길한 것 파 흥한 거서 파 업  
용 힘호는 노당 직이 왈그러호니라 전도인이  
왈허다 관사름이 장스호라호면 반드시 문져  
보살에게 무러보아 세 번길한 패를 엿은 사름  
이 적지 아니호련마는 엿지호여 길한 거서도  
로려 흥호게 되며 아모령 힘도 업는 노당 직이  
티 답지 안터라 전도인이 다시 무르티 चु침을  
엿는 거슨 무슴 뜻이요 티 답호되 보살이 화와  
복을 미리 마르쳐실 가호야 별미 니라 전도인  
이 고평으 티 보살이 입은 잇스되 말을 못호거슨  
엇지 화와 복을 마르쳐 리요 당직이 고평으 티 보

살이 비록 말은 못하나 그 속 뜻은 추첨티에 드  
릿스니 텨는 말을 쓰세히 푸러 보면 장리화  
되고 복됨을 아느니라 곧으티 침혀로 써엇지  
텨는 말을 푸느뇨 당직이 곧으티 가령 정월  
에 환히 신수를 보아 샹패를 엮으면 을히 에는  
크게 길하고 중패를 엮으면 또 환해 될 것도 업  
고 엮을 것도 업고 하패를 엮으면 흉환거슨 크  
고 길환거슨 적으니라 전도인이 곧으티 효험  
이 잇는뇨 곧으티 효험이 덩녕 잇는니라 전도  
인이 곧으티 령험이 비는티로 잇서야 환거시  
여늘내 보매 샹패를 엮고 저하나도로 허하패

를 엮고 하패를 엮어도 또 환길환일도 잇고 후  
맛는 것도 불파우연이 함함이니 엮지 텨돈과  
텨돈을 령험하다 하리요 당직이 머리를 흔들  
며 텨답지 않는지라 전도인이 왈 도희돈과 도  
희옷살살음은 무슨 뜻이뇨 곧으티 도희돈은  
쓰쇼셔 함이요 도희옷은 남으시라 함이니라  
전도인이 왈 보살이 밧는뇨 밧으저는니라 전  
도인이 곧으티 보살이 사람의 모든 도희옷살  
엇어 남고 도희돈을 엮어 써서 사람이 주기를  
기드릴진티 엮지 사람의게 복을 주는 슈단이  
잇스리요 또 환돈과 옷살살어셔 드리되 보살

이 밝는 거슨 보지 못 할 겿고 다만 도회지 만 늚  
아 잇스니 도회지가 엇지 금은과의 복이 변호  
여 되리요 샹고 호야 불진티 도회는 진나라 한  
나라 세브러 비로 소문 든 지시 요도회 옷 손 당  
나라 세브러 시작 호여 삼티 이전과 진나라 한  
나라 전에 는 도회 돈과 도회 옷 시 업섯스니 그  
세에 는 보살이 어티 셔 금은과의 복을 엇엇시  
며 또 할 보살이 도회 돈과 도회 옷 불 탄 지로써  
금은과의 복을 변호 여 쓰는 령험이 잇시 면 홀  
노즈기가 아 모 물 건 도 업시 금은과의 복을 지  
여 쓰지 못 할 리요 또 할 문 노니 인간의 쓰는 금

은과의 복이 보살의 힘을 넘지 못 호고 도로 허  
보살이 사람의 문 든 금은과의 복을 밋아 쓰니  
일노 보면 보살의 슈단이 사람 만 도로 허 못 호  
도 다 옷과 돈을 티우는 거시 다만 인간 지물 만  
허비 흠이니 엇지 그 만히 허비 호는 지물 노써  
가난한 사람을 구제 치 안 노 그 거시 그 장유  
의 할 리니 생각 호여 보 쇼 셔 당 직이 좀 좀 호고  
티 답지 아니 호 더 라 전도 인이 알 풍을 울 니 고  
복을 침 은 무 슘 뜻 이 노 글 은 티 그 거시 두 가 지  
뜻 이 잇스니 할 가 지 는 쇼 석 세 를 당 호 야 보 살  
의 위 임 을 쓸 처 는 거시 요 할 가 지 는 도 회 돈 과

웃살불살을세에보살쇠아읍시라고고고는  
기시니라전도인이알복과종소리틀내여보  
살의위임을떨쳐야바야흐로밖으실줄을알  
냥이면그소리나기전에는보살이사람의것  
다가밧치는물건을온전이하지못하거늘엇  
지사름의장리화되고복됨을미리알니요뵈  
고령환사름의마음으로써령힘업는보살을  
섬기니엇지이긋치미혹하노당직이그러히  
덕이더라전도인이다사플어알티를티움은  
무슴뜻이노글으티이는깃분소리로신령의  
은혜를감사함이니라전도인이글으티사름

히모든은혜가다하노님이주신거시여늘하  
노님의일호도감사타아니하고도로허하  
노님이주신물건을가다말은나무등길노  
문든보살의게밧치고감사하다하니이는하  
노님의크게노허하시느별을면치못할지라  
가령조식이착하지못하야부모의기르신은  
례를곰압게덕이지아니하고도로허부모의  
세간을가다가부모의원슈를주면부모되는  
이가분하고노하여찌리지아니하리요부모  
의은혜를비반하야도죄가잇슬줄을어린아  
희라도알거든하노님기억할죄가잇슬줄을



엇지 모르느뇨 하는 넘의 죄를 엇으면 빌 곳이  
업느니라 모리신령의 기도하고 석가여리의  
게 불공하야 도하는 넘의 형벌을 면치 못하느  
니라 당직이 풀으티 속담에 빌으티 사람은 신  
령의 음덕을 버리고 초목은 양춘의 덕을 버  
린다 하니 우리가 맛당이 보살파신령을 섬겨  
은혜와 덕을 버릴거시여늘 그티는 보살을  
업수히 녀이여 버리라 하니 엇지 억지 말이 아  
니리요 천도인이 풀으티나 외말이 억지 말이  
아니라 당신 소견이 북지 못하여 보살이 도하  
줄년지 아니 할년지 모르고 요석으로 섬기며  
묘축문답

계말

또한 영원할년 빌을 면치 못할터인고로 내가  
전위하야 화셔하는 넘의 참도를 전하야 세상  
사람으로 하여 품모든 거짓도를 버리고 바른  
도에 도라오게 함이니 하는 넘을 섬기면 디옥  
을 버셔나고련 당에 올라가리니 가령 사람이  
바른길을 내여 놓코 밧두른길노 드러가매 누  
가 바른길노 인도하지 아니 하면 종리 바른길  
을 좃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도를 전파함은 길  
일흔 사람을 길인도함과 같지라 밧고 하니  
밧기는 사람의 게잇는 거시이니와 당신을 강  
권하여 참도로 인도함은 나의 당연한 직분이

로라 당직이 성내 여궤으티이 곳헤서 신명을  
드러이지 말고 이셔가 소점도인이 궤으티하  
자씨이긋치 조급히 말을 말고 나의 조세한  
말음을 드러 보시오세 상사름의 섬기는 보살  
이라 하는 거슨 모도 다 거궤거시라 네 전신 룡  
황 데로 브러 요순 우탕 사지니 르도록 다 오레  
살고 빙성이 다 데 평항 엿스니 그세에 는 중국  
에 우상이 업더니 한나라 상나라에 니르러 인  
심이 점점 변항야 춤도를 비반항고 의도 톨송  
상항여 귀신의 계복을 구항더니 상나라 무을  
황 데가 처음으로 우상을 문드러 신령이라 항

엿더니 후에 들에 나하갓다가 벼락을 맞나 죽  
엇스니 이는 하늘의 심이요 한나라 명  
항사 후세 사름을 정계항심이요 한나라 명  
세에 불법이 비로소 중국에 통항야 우상 위  
는 풍속이 점점 성한지라 중국에 해됨이 적지  
아니 항니 때더 보살은 중국에서 난거시 아니  
라서 엿던 축국으로 브러나 아온거시 여늘  
국사름이 밋어 섬기고 풍속이 물드러하느  
이런디 간 큰 주지 신졸을 모르고 우상을 공경  
할세에 이마를 쓰며 손가락을 티우고 무론로  
쇼항고 조석으로 지산을 허비항야 당연이 할

만환성에를내여브리니그폐가엇지크지하  
니하리요한나라로브러지금사지절과진당  
이업는곳이업고군왕이하로빅성사지힘을  
다하야밧드니만일보살이진실노직앙을업  
시하고복을줄더이면보살섬기는사름들은  
다대평을누리고요순셰보담더옥오래살고  
편안할거시여늘엇지하야진나라한나라이  
후로는란리와망흥이서로닛고나라복이길  
지못하며세상이쇠하야사름의슈가더옥부  
족하고도적파적변이쉬지하니하니이갓흔  
환란이엇지보살섬긴현교가아니리요세상

사름이보살섬김은복을비는거시여불도로  
허앙과물엿은죽보살섬기는거시슈고만하  
고공효업숨을가히알니라이리므로나는보  
살이당녕곧외도로아노라브라건대아까지  
꺼셔종용이성각하야나의말을빚언이듯지  
마르시민이우도곧가하노이다당적이곧  
티우리가보살과진령을섬기때그도아주심  
을넘지안논이가업거늘그티는말하되넛적  
에는보살이업다하니넛적에는누가도아주  
섯노노전도인이곧으티련하만민이일절하  
느님의기르시논은폐를넘고공하고망하며

성호교외 흙과가난호고부호며귀호고천환  
거시다하느님이주신거시니보살과무습상  
관이잇스리요조선사람의섬거늘보살은다  
넋적사름으로이왕죽은거술사름들이나무  
와돌노형상을착여늦코망녕되이놓흔일흙  
을지어신령이라부르느니그미혹흙과죄악  
이측량할수가업느니라당직이알보살은봉  
호심을밧은고로비록우상이라호나그실상  
인즉신의게결호는거시니라전도인이알보  
살이귀게봉흙을밧았느뇨당직이글으티옥  
광의척봉호심을밧은이도잇고현조의척봉

흙을밧은이도잇느니라전도인이알옥황은  
송나라휘종황제가봉술거시니조기도사름  
의봉흙을밧았거든엇지다른신을봉호여주  
리요이又판말은밧을수가업고황제가죽은  
사름을봉호여신을삼엇다할진대그권능은  
누가준거시뇨당직이알현조의권이스히를  
진당호시메위임과권능으로엇지못할일이  
잇스리요전도인이알황제의권이능히신하  
로호여곰타국에봉호여벼슬을식이지못호  
거든엇지죽은사름을하늘에봉호여신이되  
게호리요빙조1알현조1능히사름을하늘

에 천거 하되 하는 님으로 하여 품련 하를 주시  
게 할 수는 업다 하섯스니 임의 하는 님으로 하  
여 품련 하를 주시 게 못 할진대 하물며 하물에  
봉하여 신이 되게 할 쇼냐 황대는 사름이 매다  
스리는 거시 다만 사름 썩이라 사름과 귀신이  
유명이 다르고 又 혼세라도 권능치 못하거든  
하물며 수백년 선후가 又 지 아니 하니 리치가  
올치 아니 하요 만일 심전에는 사름이 되고 소  
후에는 신이 되엿다 하량이면 그 사름 업술세  
에는 모든 백성이 무삼 신을 위하엿는 노당직  
이 고평오티 우리 섬기는 신명은 다 허한 하다 할

진대 누구를 섬기 여야 요 조리 요 전도 인이 할  
하물에 두리가 업고 백성은 두인군이 업다 하  
니련디 간에 다만 하는 님 썩이니라 당직이 알  
련디 가한 량 업시 곱고 크니 하는 님이 엿지 혼  
자다 소리 리요 비유진대 나라 님금이 홀노 나  
라를 다스리기 어려운고로 백관을 봉하여 흠  
쇠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님 각각 건대 하는 님  
도 일백귀신을 봉하여 서로 돕게 하시리라 전  
도 인이 알하는 님이 능치 못하심이 업스샤련  
디를 창조 하섯신즉 능히 려디를 다스릴 거시  
요 만민을 창조 하섯신즉 능히 만민을 다스릴

지니 만일 하느님 석셔 죽은 사람의 도움을 남  
을 진티 그 사람을 죽지 아니 하엿실 세에 누  
가 하느님을 도왔노는 당직이 왈 그티 말에 상  
데 라 하느님이 라 하느님이 가 보살이 시냐 전도  
인이 왈 아니 라 하느님은 언턴디 간 큰 주지 시 요  
심스와 화복의 권능을 잡으샤 지극히 높하 비  
홀이 가 업고 하나 시 요 들도 아니 게 시 니 라  
직 당이 왈 옥황이 하느님이 아니 시냐 곧 으티  
옥황은 성이 장이 요 정월 초 구 일에 탄 성 하엿  
다 하 니란 일이 잇스면 즉 반드 시 부모 가 잇솔 거  
시 요 부모 가 잇스면 덩녕 혼 사 례 이 여 늘 엿 지

상 데 라 망녕 되 이 날 쿨 노는 당 직이 왈 옥황이  
상 데 가 아니 시 면 하느님 이 상 데 시냐 곧 으티 아  
니 라 상 데 는 하느님 에 서 더 옥 높 호 시 니 라  
당 직이 왈 높고 높 호 샤 오 직 하느님 이 크 다 하엿  
스니 상 데 석셔 더 높 홀 수가 잇스 리 요 전도 인  
이 왈 하느님 은 상 데 계 신 처 소 | 라 비 유 로 문 노  
니 런 즈 가 높 호 나 런 즈 의 궁 던 이 높 호 나 당 직  
이 왈 런 즈 가 궁 던 주 인 이 니 런 즈 가 높 호 니 라  
전도 인 이 왈 임 의 런 즈 가 궁 던 주 인 이 줄 은 알  
고 홀 노 상 데 가 하느님 주 인 이 신 줄 은 모 로 노  
당 직 이 곧 으티 상 데 석셔 탄 일 이 게 시냐 곧 으

덕상대는절노계신지라련디기벽이전브러  
게시옵서시작도업고종말도업스신고로란  
일과그일이업느니일노보면상대씩셔만티  
만민외큰쥬지시매만민이맛당히흙씩셔  
야올켜놀아자씨셔는엇지올치아니할도  
를밧드러헿고춤도는모르느노당직이할  
늦고천할우리곳할적은빅성이엇지능히상  
대를섬기리요전도인이알상대는만민의하  
늘아버지라련조로셔인사지다상대의덕회  
올밧은즉사름마다그직분올다하야섬길지  
라엇지높고느진기슬분변하리요비록악한  
고추문간

집소

사름이라도전에죄악을누엇쳐곳치면가히  
상대를섬길지니라당직이할련조가올노련  
더에제스를드리느니만일빅성이상대를섬  
기면춤람하지아니라전도인이알이느사름  
의뜻스로높고느짐을분별흙이요상대의근  
본뜻지아니라비유컨대할사름이아들형데  
를두엇시매큰아들이큰오티배가맛아들이  
니랑친을혼자섬기겐다하고돌제아들이노  
할부모를섬기라고하매장형이섬기지못하  
게하면그부모맛아들뜻슬깃기하며노할들  
제아들이장형의뜻슬좃차랑친을섬기지아

니하라 당직이 곧 으티 그러치 아니 하리라 전  
도인이 왈 그 둘직 아들이 장형의 말을 좃칠 리  
치가 업고 그 부모가 반드시 맛아 들의 효만 받  
지 아니 리니 련 조와셔 인이 비록 귀 하 고 천 흠  
은 다르나 샹 데 섬기는 본분은 일반이니라 당  
직이 왈 우리 도 샹 데 를 섬기는 일이 잇스니 하  
늘을 티 하야 제스 하 는 거시 또 혼 샹 데 를 섬기  
는 거시 니라 전 도인이 왈 련 디에 제스 하 는 거  
스 샹 데 쇠셔 문드 신물 건의 게 제스 흠이 요 샹  
데 쇠 지 내 는 거시 아 니라 비 유 권 대 아 비 가 집  
을 지 여 조 식 을 주 었 더 니 조 식 이 부모 는 아 니

섬기고 부모 지은 집을 섬기는 거시 이에 셔다  
름이 잇스 리요 당직이 왈 샹 데 를 섬기 라 하 면  
스 당 직 을 지 어 야 하 겠 는 나 전 도 인 이 왈 그러  
치 아니 하 니라 성경에 닐 너 스 되 샹 데 쇠 셔 는  
사람의 손 으 로 문드 집 에 거 하 시 지 안 는 다 하  
엿 는 니라

당직이 왈 그러 하면 샹 데 의 화 샹 을 모 시 는 나  
전 도 인 이 왈 샹 데 는 곳 신이 시니 무 형 무 샹 하  
자 사람이 능히 피 을 수가 업 는 고 로 형 샹 을 방  
불 히 문드 지 못 하 는 니라 성경에 닐 너 스 되 샹  
데 는 세 샹 사람이 금과 은이 다 돌고 문드 션 가



又치아지마라 하고 또 신의 형상을 위하느니라  
손상대의 금홍십을 범함이라 하였느니라  
당직이 왈상대를 공정하느 곳이 텅홀쳐소가  
잇느냐 전도인이 왈상대 쇠서 우리와 상거가  
밀지아니 하샤하지 못하십이 업스신 고로 길  
에 서나 집에 서나 산에 서나 물에 서나 맛당히  
공정할 거시오 상대 쇠서 또 홀우리기도를 굽  
어 들으샤 허락하시느니라 당직이 왈상대를  
섬길새에 세가지 희성과 실과와 술을 쓰느냐  
전도인이 왈상대 쇠서 무슴부족할 물건이 잇  
스리요 세상에 금슈와 초목과 허다할 물건이  
잇

로만 민을 주시니 상대 하고 신부자가 업거늘  
무슴물건으로 드리리요 성경에 닐넛스되 상  
대는 신이시니 숭봉하느 사름이 정성과 온전  
할모음과 뜻으로 섬길뿐이라 하였느니라  
당직이 왈제스 할 물건이 업스면 엇지 공정하  
고 사랑하느 모음을 표히리요 전도인이 왈성  
경에 닐너스되 내의 몸을 산제물과 또 치드리  
라 하였스니 다만 몸과 모음으로 하는 님마르  
치신도를 조차 착한도를 행하면 제물노 공정  
하고 사랑하느 모음을 표하느 이보다나 하리  
라 당직이 왈상대를 섬기라 하면 달마다 초하

로 보름으로 텅흐는 나전도인이 왈 성서에 날  
너스더 반드시 흥상기도 하고 계어르게 말나  
흐섯스니 때더 상대 쇠셔어질고 사랑흐심으  
로우리 령혼과 육신을 기르샤 조곰도 간단이  
업스신즉 우리가 또 흥상대 놓혀 밧들기물초  
흐로와 보름에 만홀썸하니라 아모세라도 흥  
상기도 할지니라 당직이 왈 기도 할세에 또 혼  
덕담으로 흐는 나전도인이 왈 성정에 흐섯스  
디사름은외모로 취하고 상대 쇠셔는 믿음으  
로 덕흐신다 흐섯스니 상대 쇠기도 할량이면  
글과 말을 치레 할거지 아니라 전심과 지성으

로 흐며 중언부언 하지 말고 빌기를 조심하야  
조식이 부모 쇠비드시 할지니라 아자씨는 전  
죽을치 못하도록 버리고 조곰에도 달라와 하를  
나라 영원할복을 누리면 엿지다 행치하니리  
요 당직이 왈 내가 만일 젊었실세에 이런 말을  
들었더면 흥흐섯스런마는 지금은 나히 늙었  
시니 엿지 흥흐리요 전도인이 왈 아직 도 늦지  
안코 또 혼춤도에 엿지조 만을 해하리리요 공  
조말슴에도 아춤에도 들드르면 저녁에 죽어  
도 올타 흐섯스니 맛당이 예수의 복음을 밋어  
행하라 만일이 제 밋어 행치하니 흐면 후게리

웃쳐도 할수업소리니 생각하라 전도인이 날  
이 점으는 거슬 보고 당직이로더 브러 작별하  
고 가니라

묘축문답권지상종

묘축문답

십팔

묘축문답하전

잇흔날 전도인이 다시 신앙에 드러가니 당직  
이 영접하여 인스름 못춘후에 세상니야기를  
하더니 전도인이 왈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의  
보살 섬기는 거시 좃도 가아님을 말하엿더니  
싱각하야 보견티 좃도 니 잇가 당직이 곧  
티그티말이 보살이거 좃거시라 곱을내가 아  
니 밋는 거시하나라다 만흔가지의 심이 잇스  
니 사람의 전하는 말이 신안고 울적 만이라하  
는 씨에 현후마노라 가 잇서 미우령험하야 미  
양기 록 곱을나라내며 빅성을 구원하느니라